

“만해스님은 인류 보편성 추구”

“만해스님은 승려로서 구도의 길을 걸었으며, 시인으로서 남을 노래했고, 독립운동가로서 육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만해스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죽을 때까지 정신과 행동이 모두 청춘이었습니다. 만해스님은 또 시를 통해 민족보다는 세계적인 지향,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했습니다. 청춘의 삶과 인류적 보편성의 추구가 다가옵니다.”

지난 1월 미국 버클리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나 한국시를 강의하고 있는 고은 시인이 만해축전을 앞두고 만해축전 대회장과 만해시인학교 교장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11일 경기도 안성 고은 시인의 자택에서 만나 만해와 불교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들었다.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만해스님이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

▲만해스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님’이며, 만해의 님은 공(公)이다. 공은 무사(無私), 곧 불교의 공(空)사상과 연계된다. 내가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나를 더욱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다.

-이번 축전이 만해사상과 문학의 세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루이스 랭카스터(미 버클리대 교수), 데이비드 맥킨(미 하버드대 교수), 체코의 만해연구가 이반나 등 불교학과 만해 연구의 권위자

‘제1회 만해축전’ 대회장 고은시인 美하버드대 등서 ‘한국시’ 강의중 일시귀국 “축전 계기로 만해사상과 문학 세계화 기대”

들이 ‘학술대회 발표자로 참석하니 이만하면 국제학술대회로 손색이 없다. 아카데미 프랑세스의 마크 온랑지오 교수가 참석 못해 아쉽다. 2회 때는 인도 중국 베트남의 지식인도 아우르는 학술회의를 생각하고 있다.

-만해시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시는 근본적으로 어둠이다. 독자들이 한편의 시와 만나 순결한 감동을 느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어둠은 빛으로 밝아올 것이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융합적 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결핍되었던 보편정신을 길러내야 한다. 그동안 보편성은 늘 우리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강요됐다. 우리와 다른 곳의 특수성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정신을 말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어떤 느낌을 꽃피워야 한다고 할 때 전통사회의 종교와 문화현상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재해석하는 것, 그럼으

로써 우리의 가치로써 재생산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내 생활이며, 작품으로써 펼쳐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본 한국불교는 어떤가.

▲한국불교의 가풍은 육조해남인데, 나는 신수의 점수(漸修)를 생각한다. 한국불교는 점수를 잃어버려 부황해졌다. 돈오(頓悟)의 매력을 모르는 바 아니니, 일상적인 지속성은 돈오로 감당할 수 없다. 돈오와 점수가 나눠졌음은 합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절일성을 실현해야 한다. 급한 사람에게선 점수로, 게으른 사람에게선 돈오로 후려쳐야 한다.

“만해축전은 오현스님과 관동불교계의 후의, 만해에 생애를 내걸었던 김재홍교수 등 집행위원회의 수고로 이뤄지는 것이다. 만해축전의 대회장으로 내 이름이 얹어져 외발이 없지 않으나, 대단히 기쁠 따름”이라고 밝힌 고 시인은 만해축전을 마치고 18일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내년 2월 귀국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 나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더욱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만해스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강조하는 고은시인.

불교TV 노조 사장퇴진 요구 파업 돌입

불교TV 노조(위원장 윤상호)는 16일부터 뉴스를 비롯한 일체의 방송 제작을 중단하는 등 허문도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조원들은 조계사 봉은사 대각사 등 서울 시내 사찰에서 허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허사장은 퇴진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조계종 btm 특위도 회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월10일 대표이사에 선임된 허사장은 직원들과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1백일이 지나도록 대표이사로서 출연금 조차 내놓지 못했으며 7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길 출자자 또한 영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허

허사장 “퇴진불가” 사장 퇴진 이
임대로 지불 못하면 급여의 미지
이달말 방송송출중단 작부원을 사
업부에 투입

한 인사 단행, 신규 프로그램 제작비 미지급 등의 불만도 파업을 선택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 허문도 사장은 “경영 정상화에 대해 직원들에게 2개월 이내에 노력하겠다는 뜻은 밝힌 적이 있으나 약속한 적은 없다”며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노조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라도 경영 정상화를 이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btm특위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

7월23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종단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위는 20일이 지났는데도 대책 회의 한번 주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교TV가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까지 지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교TV는 우선 8월말까지 금호천기에 지불할 6억1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날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매일 8천만원 정도 지급해야 할 분배금 사용료도 현재로서는 지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송출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태다.

김주림 기자(jkim@buddhopia.com)



◇ 허문도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 농성에 들어간 불교TV 노조원들.

비관적인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통도사 영축총림 해제 이후 통도사 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하스님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만, ‘반월하’ 그룹에서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 개최 시도가 있었다. 월하스님 그룹 내에서도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월하스님이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고 해 한때 월하스님이 방장을 사퇴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주지 선출을 둘러싼 본격적인 세겨루기도 변화된 모습이다. 월하스님에 의해 주지직에서 해임된 월하스님 등을 중심으로 6월 모임을 주지로 선출기 위한 산중총회 시도가 있었다. 이때 통도사 재적승 1백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하스님측도 9월과 12일 산중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월하스님측에서는 △총무원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의 주지 선출 △경회사의 참가자들의 거리두기를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종회 내 총책그룹간, 종회의원 일부와 총무원장과의 갈등, 총무원과 통도사와의 힘겨루기 현상을 두고 불교가 세속의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구도와 중생제도라는 불교의 본분사에 매진하는 종단이 되기를 많은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의 속얇이

동국학원 이사추천 놓고 청림회등 이론 영축총림해제 이후 통도사 분위기 어수선

종립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통도사 영축총림 해제를 둘러싸고 조계종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휴회까지 불사했던 중앙총회 내 청림회 일여회가 동국학원 이사후보 재추천, 고산 총무원장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쟁점화하고 있다. 특히 직영사찰 두 곳의 주지 임명 등을 들어 총무원이 파행적인 인사행정을 펴고 있다고 고산 총무원장을 문제점의 원인으로 거론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산 총무원장 취임 이후 7개월여 동안 유지됐던 총회와의 밀월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세겨루기가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산스님에게는 종단의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고 무차와함을 이루기 위한 정치력 발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여회와 청림회는 11일 ‘현하 종단 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종회의원 탄우스님 사퇴 △총무원의 편파적인 인사행정 시정 △8월까지 동국학

원 이사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특히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과 관련, “특정 사찰의 동국학원 장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8월말까지 재추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새로 뽑힐 이사 6명 가운데 절반이 ‘특정사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스님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림회와 일여회에 의해 특정사찰로 지목된 이 사찰의 한 중진스님은 “동국학원 이사 추천은 종법기구인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재추천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 새 이사선임과 새차례 이사장을 지낸 녹원 현 이사장의 4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이사회는 13명의 스님이사 가운데 6명의 임기가 11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정관에 의거해 2개월 전에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청림회와 일여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총무원 주변에서는 민주적인 종단 운영을 바라는 중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평가와 자기류 행기라는

이번 수해도 막심하다. 흔히들 이런 재난을 두고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끌어 끌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가.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적어본다. 사망과 실종이 64명, 이재민이 2만4천3백여명 도로와 하천의 유실이 541곳, 주택 파손이 9천4백13

동, 농경지 유실이 4만1천190ha로 수해피해 추정액이 1조2천4백7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비슷한 천재인듯한 인재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불감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네 성격이 대체로 쉽게 자각받고 쉽게 잊는다. 이런 속성은 다분히 현재적인 삶의 자세에 있는 것 같다. 유비무환이라고 말하는 번지르르하게 부르짖지만 정작 정신을 쏟는 것은 지금의 찰나 뿐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현재적이고 해도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현재는 받아들이기를

이근후(이화대 교수·복지논설위원)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법물(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계(2분 49초) 9. 무상계(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6.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7.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상업부서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최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송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회숙)

■보급처: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